

‘100대 80대 100 모델’ 주 4일제, 효과 좋아 도입 늘어나

〈임금 100%, 업무시간 80%, 생산성 100%〉

짐 불리
코리아중앙데일리 에디터

영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일부 기업들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시범근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.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카메라 제조업체인 캐논(Canon)의 영국지사인 캐논 텔레콤(Yo Telecom), 게임개발업체 허치(Hutch) 등이 참여하고 있다.

이들 회사의 직원들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주당 하루 적게 일한다. 주 4일 근무제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더 나아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. 이 회사들은 이른바 ‘100대 80대 100 모델’을 따른다. 직원들은 기존 임금의 100%를 받고 기존 업무시간의 80%만 일하는 대신 생산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100%로 유지하기로 약속한다. 즉, 근로자들은 적은 업무 시간에 이전과 동일한 양과 질의 업무를 해야 한다.

한국 에듀윌·카카오게임즈·SK도 주 4일제

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주도한 주 4일제 공약은 이번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핫이슈였다. 한국의 주 4일제는 일주일에 4일, 하루 10시간씩 총 40시간 일하는 형태로 제시됐다. 반면 영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 4일제는 일주일에 4일, 하루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.

현재 영국은 법적으로 주 48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이다. 매주 엄격하게 48시간 일해야 한다기보다 4~5개월에 걸친 평균값으로 계산된다. 하지만, 실제로 많은 회사는 이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한다. 영국의 표준 업무 시간은 오전 9시~오후 5시이며, 야근은 기피 대상이다.

영국에서는 주 4일제에서 전체 업무 시간을 4일에 걸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일주일 중 하루에 해당하는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. 자유를 주고 근로자들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.

주 4일제는 영국의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.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. 주말을 더 길게 보내면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이에 따라 실제 업무를 하는 주 중에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생산력이 향상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. 주 4일 근무를 통해 고용주들은 비용 절감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지만, 이 제도의 핵심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 밖에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스스로 더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.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더 쉬 수 있고, 행복한 삶을 누리며 업무 시간에는 더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이 제도의 실제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하다.

영국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가장 눈에 띄는 사례로는 법무법인 포트콜리스(Portcullis Legals)가 있다. 이 회사는 2019년 주 4일제로 전환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모두 인상되는 등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. 포트콜리스가 주 4일제 전환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적은 없다.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주 4일 34시간 근무를 계속해 왔다.

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영국에서 주 4일 근무제의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. 많은 회사가 이전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. 주 4일 근무제는 많은 경우 사무직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. 특히 한국에서 주 4일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생산 공장과 같은 업무 환경에서 하루만큼의 노동력을 손에 넣 수

시범 실시 기업 생산성·효율성 입증
팬데믹에도 유연한 근무 모색 증가

호텔 셰프 인력난에 주 4일제 변경
사무직 이어 생산직 근로자도 시행

스코틀랜드, 주 4일제 안전 의결
스페인·일본 등 속속 도입 움직임

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미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한 영국의 일부 회사들은 사무직이 아닌 경우도 있다.

5성급 호텔인 ‘랜드마크 런던’은 지난 1월 호텔 주방장들의 업무를 주 4일 근무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. 랜드마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고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.

영국 실업률은 4.1%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. 즉,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, 직원을 고용하려면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. 랜드마크는 같은 돈을 받고도 적은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.

런던 소재 한 핀테크 회사 이사인 피터 존스(Peter Jones)는 코로나19 첫 대유행 동안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다. 이 회사는 일반적인 주 4일제와 달리 업무를 하지 않은 5일째 날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. 그는 “비용 절감 때문에 업무를 줄여야 했지만,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. 직원들에게 임금을 기존보다 덜 지급했는데도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업무 외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”라고 말했다. 이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로 복귀한 이후에도 금요일에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‘20% 시간’ 제도를 시행했다. 대부분의 직원은 이 시간을 훈련과 자기 개발에 활용했다.

영국 외에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.

아이슬란드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주 4일제 실험을 통해 “부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”는 결과를 보고했다. 해당 실험을 담당한 연구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직원들의 신체적, 심리적 건강이 향상됐다.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아이슬



1.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열린 주 4일제 도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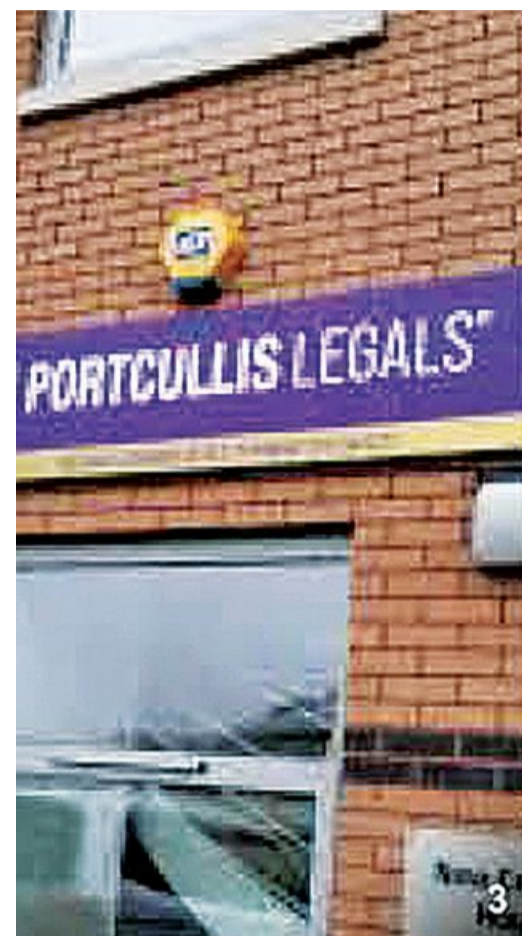
2. 지난 1월부터 호텔 주방장들의 업무를 주 4일 근무제로 바꾼 영국의 랜드마크호텔. 3. 2019년부터 주 4일제 시행 중인 영국 법무법인 포트콜리스. <사진 국회사진기자단>

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86%가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있다.

MS재팬, 주 4일제 후 1인당 매출 40% 늘어
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직원 1인당 매출이 40% 증가했다고 밝혔다.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. 전기 소비량은 23% 감소했고, 직원들의 프린터 용지 사용량은 59% 감소했다. 뉴질랜드의 부동산회사인 ‘퍼페추얼 가디언(Perpetual Guardian)’은 2018년 시범제도에서 20%의 생산성 향상을 기록했으며, 근로자들이 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. 한국 또한 에듀윌, 카카오게임즈, SK, 우아한형제들 등 다양한 기업에서 주 4일제를 적용하고 있다. 대부분 시범제도를 진행 중이며, 여태까지 반응은 긍정적이다.

영국의 첫 시범제도도 더 짧은 업무 시간을 옹호하는 포데이워크글로벌(4 Day Week Global)이라는 국제단체에 의해 시작됐다. 이 단체의 프로그램은 미국, 아일랜드에서도 시작되었고 그 후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등 국가에도 전파될 예정이다. 이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매니저인 조 오코너(Joe O'Connor)는 “주 4일제 시범은 현재 업무 방식에도 전장을 던지며 기업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, 실제 업무 생산량의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”라고 설명했다.

영국 정부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. 2021년 영국 내 스코틀랜드의 여당인 국민당(SNP)은 기존과 동일한 임금 조건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안전을 의결했다. 스코틀랜드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를 법으로 제정할 권한은 없다. 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영국 중앙정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



1.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열린 주 4일제 도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.
2. 지난 1월부터 호텔 주방장들의 업무를 주 4일 근무제로 바꾼 영국의 랜드마크호텔.
3. 2019년부터 주 4일제 시행 중인 영국 법무법인 포트콜리스. <사진 국회사진기자단>

다. 하지만 스코틀랜드 정부는 기업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스코틀랜드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로의 전환 시범 운영을 위해 지원금 1000만 파운드를 배정했다. 스코틀랜드국민당은 스코틀랜드 내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%가 주 4일 근무제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.

정부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고려하는 나라는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다. 스페인 역시 지난해 주 4일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 스페인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 32시간 근무하는 제도에 합의했다. 근로자들이 4일 근무제로 전환할 때 정부가 임금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고용주의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스코틀랜드가 진행하는 시범 운영과 비슷한 점이 있다.

즉, 스코틀랜드와 스페인 정부 모두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고용주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고도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. 일본 정부 또한 스페인의 예시와 비슷한 제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. ※번역 : 유진실

〈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〉

짐 불리(Jim Bulley)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. 한때 영국 지역 신문에서 기자로 일했다. 2012년 한국에 왔고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·스포츠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. KBS월드, TBS(교통방송), 아리랑TV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및 패널로 출연 중이다.

